

2006~2010년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군 무기 개발·확보에 41조

기초생활보장 내년 9조500억원...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핵심 무기의 개발·확보를 비롯한 전력 투자에 2006~2010년 5년간 모두 4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올해 5조3천억원에서 매년 평균 15% 늘어나 2010년에는 9조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 국방분야 지출은 2006년 22조2천906억원에서 2007년 24조485억원, 2008년 26조3천9억원, 2009년 28조7천752억원, 2010년 30조7천710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력 투자는 올해 5조7천881억원에서 2007년 6조8천203억원, 2008년 8조825억원, 2009년 9조5천240억원, 2010년 11조1천73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병 기준 월급을 올해 6만5천원에서 2007년에는 8만원으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을 2006년 5조3천438억원에서 2007년 6조5천907억원, 2008년 7조1천464억원, 2009년 8조1천88억원, 2010년 9조4천34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5.3%에 이른다.

영유아(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2006년 56만명에서 2010년 95만명으로,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은 2006년 30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1천490억원에서 2010년 2천91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을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으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영유아(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2006년 56만명에서 2010년 95만명으로,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은 2006년 30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1천490억원에서 2010년 2천91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을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으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남뉴스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美 보잉 B-737기종 최종 선정

우리 공군이 도입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로 미국 보잉의 B-737 기종이 최종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으로 B-737을 제안한 보잉과 계약을 맺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조6천억원이 투입될 E-X 사

업 계약은 이달 말에 체결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전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핵심전력 가운데 하나인 E-X는 한반도 전역 및 주변국의 일부 상공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2011년에 1대, 2012년에 3대가 각각 도입될 예정이다.

B-737은 피아식별 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노드프 그루만사의 'MESA'(다

능 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지역을 탐색하면서 아군 전투기, 함정 등에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한다.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천400m, 항속 거리는 6천482km다.

연남뉴스

케네디 상원의원, 유엔 사무총장 당선 潘 장관에 '특별한 선물'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반기문 외교총장부 장관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 화제다.

케네디 의원은 1962년 '고교생 반기문'이 백악관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문 내용을 함께 액자로 만들어 7일 장관에게 보냈다.

1962년 총주교에 재학하던 반 장관은 갈고 닦은 영어실력으로 미 정부가 주최하는 영어 웅변대회에 나가 입상, 대회를 주최한 미국 직접사자의 주선으로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는 기회를 얻었다.

케네디 의원은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당시의 사진 원본을 구하는 한편 미 정부 기록보관소에서 당시 형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찾아냈다는 후문이다.

또 자신이 친필로 적은 축하 메시지도 담았다. 메시지는 '반기문 사무총장께, JFK(Just From Korea·방금 한국에서 온 소년)가 J.F.K를 만나! 당신의 당선에 대해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 엄청나게 중요한 새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기원하며'라는 내용이다.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온 축하 액자. 액자에는 '고교생 반기문'이 백악관을 방문한 사진과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 에드워드 케네디가 친필로 적은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연남뉴스

제1차 한-아프리카포럼 '서울 선언' 채택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1차 한-아프리카포럼에서 반기문 외교총장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무역·투자증진 통해 호혜적 관계 구축을”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8일 양측간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참석자들은 8개항으로 이뤄진 '서울 선언'을 통해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3배로 늘리고 향후 3년간 1천 여명의 연수생을 초청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앞서 반기문 외교총장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의 이 자리는 실로 역사적인 자리"라고 소감을 표명했다.

보니 아이 베냉 대통령은 축사에서 "50년대 한국은 전쟁 이후 재개발 국가였지만

이제는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한국 모델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공동번영을 향하여"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아프리카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경제 협력방안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베자드 사난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난 5~6일 베이징(北京)서 열린 중-아프리카 포럼에 언급,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의 현 주소를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콩고, 탄자니아 등 5개국 정상들을 비롯, 총 27개국의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관련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연남뉴스

현장과 시각

'빅마트'의 고군분투



장필수
경제부 차장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의 매장 분장이 지역 유통업체에서 조미의 관심사다. 빅마트는 8일 오후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빅시티 원-원 자산유동화 사업설명회'를 갖고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있는 본점인 '빅시티' 1층과 2층에 대한 일반분양에 들어갔다.

분양내용을 보면 2천만 원이상이면 누구나 지분참여가 가능해 소액투자자도 대형 할인점에 내 가게를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이자보다 2배 높은 연 10%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과 함께 5년후 투자자가 원하면 빅마트가 되사기로 했다. 상가 등 부동산 임대수익률이 극히 낮은 광주지역 실정에서 볼때 파격적인 조건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파격세일이 나왔을까. 그러면에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향토 유통업체의 고민이 있다.

지난 95년 호남지역 최초로 할인점 시대를 연 빅마트는 현재 호남지역에서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매출 1천800억원으로 국내 유통업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화점 빅3과 전국망을 가진 대형 할인점의 광주진출로 지역 유통업체들이 속속 무너질때에도 의연하게 지역을 지켰고, 전국을 통틀어서도 대구백화점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유통자본에 맞서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는 빅마트를 가리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업체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빅마트가 '자산유동화'라는 방식으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매장 분양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고금리의 부채를 갖고 대기업 자본에 맞서는 토종 유통업체로 재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하상용 대표이사는 "자본의 한계가 있는 지역업체가 대기업처럼 부동산 매입부터 매장운영까지 일괄하는 방식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자산유동화를 통해 우리는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은 높은 수익률을 얻는 '윈-윈 전략'이다"고 말했다.

빅마트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무시할 수 없다. 고용인력 3천여명에 협력업체수도 1천여개에 달한다. 중앙 유통업체들이 지역 협력업체를 거의 가지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빅마트의 협력업체를 통한 지역상품 구매효과도 만만치 않다.

그런만큼 향토 유통업체의 이번 시도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많다. 빅마트의 계획대로 토종 유통업체로 재도약해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들에게도 투자이익을 안겨주는 윈-윈전략이 되길 기대해본다.

bungy@kwangju.co.kr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상당사 전원 국제결혼 상담사 자격증 취득한 공신력 있는 회사

- 국내결혼: 결혼, 재혼, 신부촌, 커플맞춤식사, 매달간행
- 국제결혼: (베트남, 중국, 몽골, 무주베트남 고령인 등) 전국 23개지사, 해외3개지사 권호향보세팅

주위딩스쿨 (주) 위딩스쿨

02-382-1491, 381-2262

2005년 대통령 국무총리 수상기념 2005년 "올해 최고의 기업" 선정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신탈

080-955-4222, 080-701-7117